



작아져 더욱 매력적인 Z3 ‘이보다 더 작을 수 없다’

아 이 옴 스 Z 3

‘보여주고 싶은 MP3’라는 인상적인 슬로건을 내세우며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는 아이옴스가 올해 초에 선보였던 MP3플레이어 X5의 미니버전 ‘아이옴스 Z3’를 내놓으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컬러 5배준 이미지 뷰, 25가지 이퀄라이저 지원, SRS 와우(WOW) 3D 사운드, 리얼 TTS 기능 등 사양은 훨씬 좋아지고 가격은 10만원대로 대폭 낮춰 크기와 가격 모두 거품을 뺀 제품으로 MP3플레이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글 이은규 객원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파 스틸톤의 핑크와 그린 두가지 컬러의 아이옵스(IOPS) Z3 MP3플레이어는 아이옵스가 올 초에 선보였던 X5의 미니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X5에 답아 있다.

외형뿐만 아니라 기능과 스펙도 흡사한 점이 많아, 기존에 X5를 알고 있던 이들에게는 조금은 식상한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한층 작아져 귀여워진 만큼 Z3만이 가진 매력들 또한 많다. 작아져 또 다른 매력을 갖춘 아이옵스 Z3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아이옵스는 어떤 회사

아이옵스 Z3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아이옵스가 어떤 회사인지 생소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아이옵스는 설립된 지 3년만에 톡톡 튀는 마케팅과 기술력을 앞세워 나름의 마니아층을 형성해 가고 있는 MP3P 전문업체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방송을 즐겨보는 10~30대 게임팬이라면 '아이옵스(IOPS)' 라는 이름이 친숙할 것이다. 바로 이 회사가 지난해 게임 전문방송 온게임넷의 스타리그를 공식 후원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아이옵스는 삼성전자의 '엠펙(Yepp)' 개발에 참여했던 차정목 대표(36) 등이 2002년 3월 세운 회사다. MP3P업계의 후발주자인 만큼 처음부터 차별화된 기술에 초점을 맞췄다. 2003년 말 출시한 첫 제품에서부터 현재 휴대폰에서나 쓰이는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인 '암(ARM)9코어'를 사용했고 국내 최초로 오그노비스 파일로 된 음원파일을 재생하도록 했다. 이 파일은 MP3파일보다 압축률이 높아 더 많은 곡을 저장할 수 있는 데다 음질도 우수한 파일형태다.

또한 USB포트가 내장된 플러그타입의 제품을 만들어 업계를 놀라게 했다. 또 재즈, 힙합 등 음악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MP3P가 최적의 음악 상태를 만들어 주는 이퀄라이저 기능도 25가지나 만들었다. 게다가 이번에 소개할 30g의 초소형 제품 'Z3'는 동영상도 볼 수 있지만 가격은 1GB(기가바이트) 대용량이 19만9,000원에 불과하다. 512MB는 15만 9,000원이다.

MP3P 종주국 자존심 건 'Z3'

Z3를 우선 손에 접하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조그 버튼의 태극문양이다. 태극 문양은 한국이 MP3P의 종주국임을 강조하기 위해 도안해 낸 것이다. 그 작은 태극 문양 속에 MP3P의 모든 기능이 담겨져 있다 는 것이 경이롭다. Z3는 20W 출력에 재생 도중 동화상과 스크린세이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컬러 5배속 이미지 뷰, 텍스트 뷰, USB 2.0 80Mbps, 25가지 이퀄라이저 기능 등을 갖췄다.

누차 언급했듯 아이옵스(IOPS) Z3는 사이즈와 배터리 용량(최대 재생 시간을 제외하면 X5에서 변경된 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신제품으로서의 임팩트나 흥미는 좀 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X5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뿐이지, 이제 막 아이옵스의 MP3P를 구입하려는 이들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Z3의 작아진 사이즈가 가진 파장은 의외로 크다.

기존 X5의 사이즈가 다소 부담되는 여성 구매자들이나 가벼운 무게와 휴대성을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들의 입맛에는 Z3가 더욱 적절할 것이다. 또한 X5 보다는 더욱 간소하고 수수한 디자인의 멋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도 Z3는 가능성 있는 선택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채 10시간이 못되어 다소 짧게 느껴질 재생 시간은 이 제품 최대의 걸림돌이다. 그래도 작은 배터리 용량은 비단 Z3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소형 MP3플레이어들에 공통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데 위안을 삼을 수 있겠다. 동급 제품들과 비교해 뒤쳐짐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Z3는 최강 미니 MP3P 반열에 올려놓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아담하고 더욱 심플해진 디자인

앞서도 언급했듯 Z3는 X5의 사이즈만 축약해놓은 닭은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X5는 사실 근래에 출시된 MP3플레이어 가운데서는 사이즈가 약간 큰 편에 속했는데(3.5×7.5×1.44cm), Z3는 손가락 마디 두 개 정도 크기에 지나지 않아 타사의 모든 소형 제품들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담해졌다(2.5×5.5×1.38cm). 무게 역시 48.5g에서 32g으로 크게 줄었다(내장 배터리 무게 포함).

그런데 이렇게 크기와 무게가 줄면서 배터리 용량도 함께 줄어, Z3의 연속 재생 시간은 볼륨 50%·EQ 노멀·OLED Off 상태에서 최대 약 10시간 정도에 그친다(X5는 18시간). 최적 조건에서 10시간이면 통상 7~8시간 정도가 최대 재생 시간이므로 사용중에는 충전을 자주 시켜줄 필요가 있다.

Z3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X5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심플함, 수수함은 더욱 극단을 달리는 듯 하다. 조그마한 성냥갑과도 같은 네모 반듯한





박스 모양 하우징에 상단 컬러 OLED와 하단 네비게이션 조그 버튼이 아주 단출하게 배치돼 있고, X5에서도 최소화돼 있던 장식적인 부분들이 Z3에서는 아예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사이즈도 작으니까 그 수수함이 좀 지나친 탓에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세련되게 느껴지기 보다 자칫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Z3의 하우징은 X5와 마찬가지로 주요 부분이 모두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일색인 경쟁 제품들과 비교해 강도나 미관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X5에서와 같이 헤어라인 공법으로 표면 처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알루미늄이라는 재질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내주는 은은한 표면 광택에는 개성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멋이 있다.

Z3의 하우징 색상은 내장 메모리 용량에 따라 달라졌다. 512MB 제품은 연한 핑크색, 1GB 제품은 연두색이다. 제품 사이즈가 작아지다보니 색상 또한 보다 여성적인 취향에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싶다.

Z3의 최대 강점중 하나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밝고 선명해, 시야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4096 컬러의 OLED(유기 EL)이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96×64 픽셀로 X5에 장착된 것과 똑같은데, 기기의 전체 크기가 줄어든 이유로 X5에서는 다소 창이 작고 답답해 보였던 것이 Z3에 와서 야이제 사이즈 균형이 딱 맞아 보인다.

빠른 전송속도 강점

Z3의 네비게이션 버튼은 지금까지의 아이옵스 MP3플레이어들과는 좀 다르다.

중앙의 5방향 네비게이션 조그 버튼 스틱은 기존과 같은 형식이지만, 스틱 바깥쪽의 원형 패널 또한 3방향으로 눌러서 작동이 이뤄진다. 이러한 집중적인 형태의 버튼 배치는 플레이어 측면에 '전원·EQ·녹음' 버튼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기의 모든 작동을 엄지손가락 하나로 끝낼 수 있다는 간편함이 장점이다. 한편 세로로 긴 OLED 디스플레이의 방향을 따라 네비게이션 버튼 또한 기기를 옆으로 눕혀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제작한 점이 눈에 띈다.

Z3의 상부에는 홀드(HOLD) 스위치와 금도금 처리된 이어폰 단자가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서는 홀드 스위치의 형태가 좀 아쉬운데 폭이 3mm 정도에 불과함에도 왼쪽에 표면 요철과 같이 손끝에 걸릴 만한 부위가 따로 없어서, 홀드 설정을 위해서는 꼭 손톱을 밀어넣어야 하므로 스위치 작동이 그리 간편하진 않다. 스위치와 하우징 사이에 약간의 유격 또한 미관상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아랫쪽엔 리셋 버튼과 USB 2.0 연결 포트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USB 포트는 Line-in 단자와 겸용으로 사용된다.

포트 커버는 여느 MP3플레이어들처럼 반투명 고무 재질로 되어 있다. 이것이 흠이랄 수는 없지만 X5에서처럼 별도 플라스틱 커버 형태를 취했다라면 내구성면에서는 보다 나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도 약 100MB의 파일을 이동하는데 불과 14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80Mbps의 빠른 전송 속도는 아이옵스 Z3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Z3의 후면과 우측면에는 제품명과 아이옵스(IOPS) BI, FCC/CE/MIC 인증 마크, 원산지 표시 등의 내용이 흰색 도료로 실크 인쇄돼 있는데, 알루미늄이라는 재질 탓인지 배경이 연한 연두색임에도 불구하고 도료 발색이 많이 떨어진다. 또한 하우징 표면이 미세하게 오돌토돌한 모양으로 처리돼 있어서, 인쇄된 도료의 표면 부착 상태와 내구성 역시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플레이어 우측면 상단에는 X5에서와 똑같은 모양의 내장 마이크를 확인할 수 있다.

조금은 독특한 액세서리 구성

Z3에 포함된 액세서리들의 내역 자체는 평범한 듯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아이옵스 MP3플레이어와는 조금씩 달라진 것들이 있다. Z3의 액세서리들 중 가장 독특한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부들부들한 투명 PVC나 가죽 재질이 아니라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캐링 케이스이다. 케이스 색상은 Z3의 하우징 색상에 맞게 핑크 또는 그린 컬러가 들어있다. 이외 반투명·투명 케이스 중 하나가 추가로 제공된다.

다만 캐링 케이스가 경질인 데다가 Z3의 크기에 꼭 들어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케이스에 삽입할 때 기기 표면에 상처가 생길까봐 조금은 조심스럽다. 이밖에도 암밴드를 부착할 수 없다는 점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케이스 뒷쪽에 셔츠나 바지의 주머니에 걸칠 수 있는 클립이 부착돼 있는 것은 유용하다.

앞서 미처 언급을 못했지만 Z3 플레이어 본체에는 목걸이 고리가 따로 없다. Z3를 목에 걸어 휴대하려면 캐링 케이스 후면 클립의 상단 구멍에 목걸이를 결합해 사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걸이 형태는 최근 미니 사이즈 MP3플레이어들에 유행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긴 하지만, 완성도 측면에서 오히려 기존 아이옵스 제품들에 포함돼 있던 고급 촉광 목걸이를 선호하는 이들도 분명 있을 듯 하다.

앞서 플레이어 본체를 다루며 언급한 대로 Z3의 USB 2.0 포트는 Line-in 단자를 겸한다. 그래서 액세서리로 포함된 Line-in 케이블 또한 한쪽은 3.5mm 스테레오 잭이지만 다른 한쪽은 USB 미니 커넥터로 돼 있다.

Z3에는 X5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이어폰이 기본 액세서리로 포함돼 있다. 좌우 각각 20mW씩 총 40mW의 만족스러운 출력을 가지고 있고, 음질은 대체로 기존 도기 2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낫다는 것이 중평인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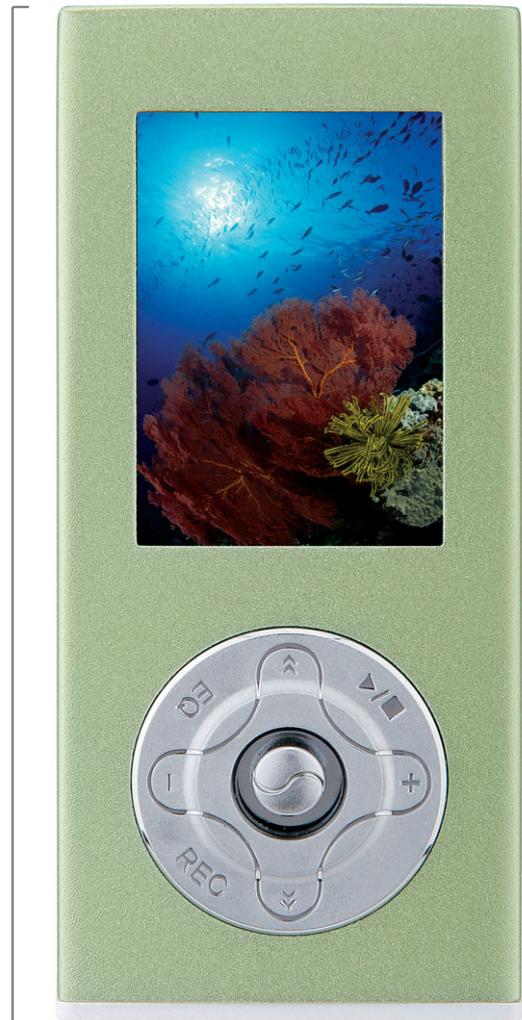
해상도에 대한 평가는 각 개인이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 여러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Z3의 출력이 상당히 크고 EQ 설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만족하고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컬러 OLED의 매력과 보강된 부가 기능들

Z3와 X5의 외형과 스펙에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은 앞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 기능면에서 두 제품의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즉 Z3 역시 X5에서와 마찬가지로 4096 컬러 OLED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들이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와 함께 제품 출시시기에 차이가 있는 만큼 Z3에는 보강된 부가 기능도 탑재돼 있다.

한편 음성 녹음·실시간 인코딩(외부 기기 녹음)·FM 방송 수신 및



- 제작사** 아이옵스(IOPS)
- 제품명** IOPS Z3
- 색상** Pink(512MB) / Green(1GB)
- 크기** 25×55×13.8 mm (가로×세로×두께)
- 무게** 약 32g(내장 배터리 무게 포함)
- 주파수 범위** 20Hz~20,000Hz
- 이어폰 출력** 20mW(좌) + 20mW(우) [16Ω, 최대볼륨]
- 신호대 잡음비** 95dB(MP3)
- 파일 지원(디코딩)** MP3(8~320Kbps, VBR 지원)
WMA(32~192Kbps), OGG(64~500Kbps)
- 메모리** 내장 SDRAM 512 / 1024 MB
- 디스플레이** 4096 컬러 OLED(96×64 pixel)
- 배터리** 리튬 폴리머(Li-Polymer) 내장 충전 배터리
PC USB 전원 또는 전용 AC 충전 어댑터 사용(2~3시간내 완충)
- 연속재생시간(음악 파일)** 최장 약 10시간(128Kbps, 44KHz MP3, EQ 노멀, Vol 50%, OLED Off시)
- 인터페이스** USB 2.0(High Speed, Max. 80Mbps)
- FM 라디오** 주파수 범위 87.5MHz~108.0MHz(20개 프리셋 가능)
신호대 잡음비 60dB
이어폰 코드 안테나
- 기타** Real TTS 기능 지원(text 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려줌)
다국어 지원(40여개국 언어 지원)
JPEG 이미지 파일 5배 줌 디스플레이 기능
25가지 이상 EQ 설정 기능
무한 프레임 컬러 동화상 및 화면보호기 지원
- 가격** 15만9,000원(512MB), 19만9,000원(1GB)
(현재 Cjmall에서만 구입가능)

녹음·어학 학습 지원·알람 설정·다국어 지원 등과 같은 기능들은 최근 출시되는 MP3플레이어들에서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사항들이므로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고, Z3의 특징적인 기능들 위주로 잠깐 소개하기로 한다.

Z3의 로딩 화면이다. 전원 버튼을 누른 후부터 로딩 완료에 걸리는 시간은 약 8초로, 빠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평균적인 수준은 된다.

4라인으로 구성된 Z3의 기본 재생 화면은 현재 시각까지 포함해 아주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알록달록한 다채로운 색상에 오밀조밀한 디자인이 확실히 평범한 MP3플레이어들과 비교해 돋보이는 면이 있다.

그간 아이옴스 MP3플레이어는 용량 대비 고음질로 각광 받고 있는 Ogg(오그보비스) 파일 지원 사항에 있어서 뚜렷한 강점을 보여왔다. Z3 역시 Q10(500kbps) 초고음질 재생 지원은 물론이고, SRS 와우 이펙트나 자동 가사 표시 기능 적용까지 가능해 경쟁 제품들보다 Ogg 파일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Z3의 특징적인 부가 기능 중에는 X5 출시 당시의 펌웨어에는 빠져있던 Real TTS가 탑재돼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Real TTS는 단순히 텍스트(text) 파일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직접 변환해 들려주는 기능으로 일단 사용자의 1차적인 흥미를 자극할만 하다. 물론 본격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혹은 전자북 활용·어학용 등 기타 목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다만 TTS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약 92MB나 되는 TTS_KO.DAT 파일을 Z3의 시스템 폴더에 복사해 줘야하므로 메모리 용량의 부담이 생긴다.

실제로 Real TTS 기능을 적용해 본 결과 한글 텍스트 파일의 경우 예초 예상보다 그 완성도와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비록 특정한 경우 일부 문장 성분 사이의 휴지 시간 처리에서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발음이나 띄어읽기 처리 모두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다.

영어로 된 텍스트 파일의 경우에도 Real TTS를 적용하면 역시 음성 변환해 들려주는 하지만, 그 완성도는 한글 파일의 그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게 무척 아쉽다. 일단 발음 자체가 너무 한국적(?)이어서 예전에 한 때 유행했던 '조형기식 팝송 부르기'를 떠올린다면 거의 정확할



것이다.

한편 Real TTS 기능의 실질적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아이옴스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Real TTS 전용 자료실을 활용해볼 수도 있다. Z3는그만의 강점인 4096 컬러 OLED를 심분 활용해 무한 프레임의 컬러 동화상을 화면보호기나 로딩 로고(loading logo)로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컬러 동화상 파일의 확장자는 ASV이고 Z3 유틸리티 CD에 포함 된 IOPS Image Converter를 이용해 편집, 생성할 수 있다. 만일 개인적으로 로고를 만드는 작업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기존 아이옴스 MP3플레이어 사용자들의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돼 있으므로 관련 자료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X5에서 이미 선보였던 '이미지 앨범'도 아이옴스 Z3의 컬러 OLED를 활용한 돋보이는 부가 기능들 중 하나이다.

다만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96×64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메모리 용량을 고려해 이미지 확장자가 JPG로 제한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최대 5배 줌으로 당겨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사진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 정도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EQ 설정에 관련된 사항 역시 기존 X5와 전혀 차이가 없지만, 총 27가지나 되는 셋팅 지원은 40mW의 강력한 출력과 함께 경쟁 제품들에 대비되는 Z3시리즈의 뚜렷한 강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5밴드 이퀄라이저와 SRS 와우 이펙트 설정은 매번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각각 3개씩 개별적으로 셋팅해 둘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뛰어난 뿐더러 정말로 다양한 청취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을 두루 만족시킬 만 하다.

근래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MP3플레이어들이 그러하듯, Z3 역시 북마크나 재생 목록을 추가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음악 파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 파일 및 TTS에까지 북마크를 설정할 수 있고, 자동 가사 입력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mediaSync Manager를 통한 파일 정렬 기능까지 제공하는 점 등은 아이옴스만의 특화된 기능들이다. ●